

전남 4곳 특구 지정...특성화 사업 탄력

강진 고려청자
영광 굴비산업
고흥 우주산업
보성 영어교육

강진과 고흥, 영광과 보성 등 전남지역 4곳이 고려청자, 우주해양리조트, 굴비산업, 영어·평생 교육 특구로 각각 지정되면서 지역 특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등 6개 특구 신규지정과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등 2개 특구의 계획변경을 심의·의결했다.

강진군 대구면 일대 30만56㎡ 부지가 특구로 지정된 고려청자문화특구에는 오는 2011년

까지 국비 225억원 등 총 5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관광단지과 청자촌 등 고려청자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도예학교·쇼핑몰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나로 우주센터, 국립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등 우주항공산업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레포츠 지역으로 탈바꿈된다. 특구로 지정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15만8천여㎡ 부지에는 오는 2011년까지 국비 65억원, 민자 3천255억원 등 총 3천3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방사전망대·타워 콘도·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굴비의 국내 최대 생산지인 영광군 법성포 일대 10만여㎡의 '굴비산업 특구'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잡초제 공급체계 개선과 생산공정 현대화 등 '생산·가공'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등에 1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광·평생교육 특구로 지정된 보성을 보성리 일원 66만1천88㎡ 부지에는 오는 2013년까지 영어체험센터와 사이버센터 등이 구축되며, ▲초·중·고 원어민 교사 배치 ▲방과 후 학교운영 ▲평문고 육성 등 교육지원사업 등이 펼쳐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고 불과 1일 대검 중수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회심의 카드를 못내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검찰은 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자료 등 다양한 압박카드를 내놓았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6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부분은 조금 명백해졌으리라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檢 "盧 순응적조사 잘 됐다"=검찰은 '승부사적 기질'을 가진 노 전 대통령이 신문을 받으면서 자치 검사와 적대적인 언쟁이 벌어질까 봐 우려했으나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순응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잘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은 반면

■소환 후 檢-盧 어느쪽이 더 유리해졌나

檢, 기소 자신감

盧 "증거 없는데..."

검찰은 그동안 찾아낸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시, 이를 꼼꼼히 읽어 본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를 이용해 장남 건호씨가 오르그스사를 설립하는 과정 등을 자료로 제시하자 노 전 대통령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통상 대질을 원하기 마련인데, 노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이를 원치 않았다"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위압감을 전하기도 했다.

◇盧 "객관적 증거 전혀 없어"=신문에

번갈아 참여한 문재인·전해철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으며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여사가 자녀들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100만 달러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이 오히려 무죄임을 반증한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100만 달러 중 일부가) 아이들에게 유학자금으로 송금되거나 한국에 왔을 때 조금 주거나 하는 식으로 쓰였다면 그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박 회장에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게 좀 더 분명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물가

5개월째 상승세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 2월 이후 상승률은 한풀 꺾였지만 농수축산물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광주는 3.3%, 전남은 3.4%씩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수축산물이 주도했다. 광주는 한 달 사이 2.2%, 지난해 4월보다 10.4%나 상승했다. 전남도 전달보다는 1.3%,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나 올랐다.

특히 생산·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주가가 전년 동월대비 광주가 11.7%, 전남이 15.3%나 올라 지난 3월(광주 10.0%, 전남 13.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보다 광주가 2.4%, 전남이 2.7%씩 상승했다. 배추(광주 87.6%, 전남 32.7%), 감자(광주 29.0%, 전남 36.7%) 등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는 생강(84.0%), 명태(74.0%), 피망(72.3%), 양파(71.5%) 등이 급등했으며, 세탁비(42.6%), 우유(34.0%) 등 생활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

전남도 양상추(87.9%), 생강(73.8%), 고등어(55.2%)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우유(37.3%), 자전거(33.1%), 공책(30.9%) 등 공업제품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57살 광주일보' 관람객 줄이어

고양시 킨텍스에서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개막

한국신문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신문들이 한데 모여 박람회를 열었다. 특히 이 박람회는 호남의 대표 신문인 광주일보도 '한국민주주의와 함께한 57년'이란 주제로 참가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한국신문협회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신문의 미래'란 주제로 제1회 '2009 신문·뉴미디어 엑스포'를 연다. 이번 엑스포에는 광주일보 등 47개 신문사들의 홍보관이 설치돼 있으며 신문의 어제·오늘·내일을 조망한 '테마관', 관람객이 신문 발행인·기자가 돼 볼 수 있는 '체험관', 신문활용교육인 'NIE관'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졌다.

특히날 할자 등 과거 신문활자와 서체·판형의 변화, 최초의 신문광고와 시사만평, 신문 역사의 주요 사건 등 신문의 지난 발자취를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과 일러스트, 실물 등으로 꾸며 전시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항쟁 등 '민주주의와 함께한 광주일보의 역사'와 '광주일보 시사만화 시대를 울리고 웃기다'란 주제로 홍보관을 열었다.

광주일보가 배출한 이훈우, 안의섭, 정운경, 김중두 등 스타 만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195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상의 변화를 조망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 행렬이 이어졌으며 광주일보 홍보관에도 첫날 2천여명이 다녀갔다. /강필성기자 kps@r

빛의만평

- 김중두

그래서 그동안 민생이 고달팠구나

여수시 - 中 산둥성 威海市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여수시와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교류협력에 나선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웨이하이시 쉰순타오 시장 일행이 오는 3일 여수시를 방문, 오현섭 여수시장과 만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협의서에 서명한다.

지난 1995년 여수시와 자매결연한 웨이하이시는 중국 산둥반도 최동단에 있으며 인구가 252만명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다. 중국 최초로 한국 인천항과 직항로를 개설했으며 지난 2003년 유엔 국제인류거주상을 받기도 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美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신청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상 결렬

생존위기에 몰렸던 미국 3위의 자동차 업체인 크라이슬러가 채권단과의 채무구조조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결국 파산보호(챕터 11) 절차에 들어갔다.

미 자동차 빅3중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크라이슬러가 처음이다.

크라이슬러는 향후 파산보호 과정에서 채무 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및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와의 제휴 관계를 통해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를 '외과수술적 파산'이라고 밝혀 문제의 근원을 숙전 속결로 해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 정부는 파산보호 기간에 파산보호 절차의 기존 관리인유지제도(DIP)에 따른 35억달러를 포함해 최대 8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 설

영산강 4단계 사업 정부의지 의심된다

지난해 완공해야 할 영산강 4단계 사업의 현재 공진률이 겨우 1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업 수혜지역 농민들은 용수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겪고 있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의 지지부진은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 때문이다. 영산강 물을 무안, 함평, 영광, 신안 등 4개군 14개 읍·면 1만6천730ha의 농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착공했다. 하지만, 국비 7천135억원이 투입될 총공사비 가운데 올해까지 지원된 공사비는 1천660억원에 불과하다. 공사가 시작된 지 8년이 넘도록 총공사비의 4분의 1도 지원이 안 된 것이다.

이 같은 예산부족으로 준공시기를 내년도로 2년을 연장해야 했고 현재 공사

설립 취지 무색한 5·18 어린이 체험학습관

개장 한 달을 맞은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어린이 체험학습관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무로 입장'이라는 말만 믿고 방문했다간 헛탕을 치기 일쑤다. 이유인즉 체험학습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험학습실에 마련된 일부 교재와 게임은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어린이 체험학습관은 5·18 민주묘지에 5월항쟁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공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시가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을 들여 설립했다. 연면적 468㎡ 규모의 체험학습관에는 '5·18 영상 홀'과 '관화 체험 및 꽃 만들기 체험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게임장' 등 10여 개의 체험시설과 전시실이 들어서 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관화 및 꽃만들기' 체험학습실의 경우 관화지·전지·가위·철사 등 준비물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전 준비 없이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더욱 가관인 것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게임들이 폭력적이라는 점이다. '진 압군을 죽여라' 등의 자극적인 멘트와 함께 진압군 복장의 군인들을 손가락으로 때려잡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약이 많거나 관람객 수가 적을 경우엔 사실상 개인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체험학습관은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5·18을 접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폭력적이고 부실한 프로그램이 자칫 어린이들에게 5월항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연합뉴스

4월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대

60억달러... 선박 등 수출 호조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무역흑자가 60억 달러를 넘어 월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지식경제부의 '4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06억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0% 줄었지만 수입이 35.6%나 급감한 246억5천만 달러에 머문데 힘입어 60억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4월까지 무역수지 누계는 95억4천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4월 무역흑자는 월단위 종전 사상 최고치인 3월의 42억9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것이다. 수출이 22%, 수입은 35.9% 감소했던 3월보다 수출 감소세가 완화됐지만 수입 감소세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무역흑자폭이 확대됐다.

수입의 경우 단가하락과 수요감소 등으로 원유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51% 줄어든 것을 비롯해 석유제품(-39%), 가스(-49%), 철강(-49%) 등 원자재 수입액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로는 큰 감소율을 기록했지만 3월에 비해서는 26% 달러 증가했고, 작년 10월 이후 처음 300억 달러대로 회복됐다. /연합뉴스

'희망근로 프로젝트' 1조7천억 추정 투입

정부는 1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추가경정예산 1조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가장 등 26만명에게 주민 생활환경 정비, 지역공공 시설물 개보수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월평균 83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임의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함께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 매출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편집국장 李東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정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